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2>

화엄삼매의 구체적 모습

화엄삼매는 모든 법계에 충만한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생명력을 보살들의 무량한 삼매로써 꽃피워 내는 것이다. 입법계품에서는 보살들이 펼쳐 보이는 화엄삼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때 저 보살들이 부처님의 삼매광명이 비치었으므로 곧 이러한 삼매에 들어갔으며, 제각기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의 크게 가없이 여기는 문을 열어 모든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인락케 하는데, 몸이 있는 털구멍마다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 광명을 내고, 낱알 광명에서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 티끌수 보살들을 변화하여 나타내니, 그 형상이 세간 입공과 같으며, 일체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시방 법계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켰다.”

이것은 부처님이 스스로 들어가 삼매(自受用三昧)의 광명이 곧 보살들도 삼매에 들어가게 해서(他受用三昧), 보살들도 한량없는 대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인락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중생의 앞에 나타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보

살들이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자비로써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가지 가지의 문(門)으로써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법을 설하

든 기술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모든 중생의 차별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좋아함이 차별됨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모든 중생의 근성, 행동, 번뇌, 습기를 아는 밝은 지혜의 문·모든 중생의 갖가지 업을 아는 밝은 지혜의 문·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문 등도 나타난다.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내는 데에는 이렇게 가지 가지의 문이 있다.

그러면 보살이 무량한 문으로써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장소를 설한다.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수 방편문으로 모든 중생이 있는 곳에 나아가 성숙케 하나니, 이른바 천궁에도 가고 옥궁에도 가고 아차·견달바·아수라·가투라·긴나라·마후라가궁에도

삼매통한 대비심으로 일체중생 교화

보살행만이 불법의 생명 꽃피워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량없는 모든 보살의 수행하는 문도 나타내고, 큰 서원의 문도 나타낸다. 열 가지 바라밀문·불법을 구하기 위해 무수히 신명을 버리는 문·모든 부처님을 가까이하여 모든 법을 물으면서도 고답픈 생각이 없는 문·모든 중생의 그때 그때의 욕망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방편으로 성숙시키어 온갖 지혜바다의 광명이 머물게 하는 문·모든 마귀를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어하여 보살의 복과 지혜의 힘을 드러내는 문·모

가며, 범왕궁에도, 인간의 왕궁에도, 열라 대왕의 궁에도, 축생 아귀 지옥의 사는 곳에도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모든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야 하는 곳이라고 설해져 있다. 부처님은 맑고 고요한 곳에 고고하게 안주해 계시는 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보편한 무한한 광명으로서 한없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영원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언제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계와 함께 하

시는 분이이다. 보살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뜻을 받들어 중생들을 위해 대비바라의 행을 실천한다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분신(分身)으로서 부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계품에서는 다시 평등한 큰 자비·큰 원(願)·지혜·방편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데,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서 그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펼쳐는 보살 모습을 밝히고 있다.

“불자여, 이 보살들이 어떤 대에는 한량 없는 변화의 몸(化身)구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무가 없는 혼자 몸을 나타내기도 하나니, 이른바 사문의 몸도 나타내고 바라문의 몸도 나타내고 고행하는 몸도 나타내고 원기왕성한 몸도 나타내며, 의사의 몸도 나타내며 장사주인의 몸도 나타내며 깨끗이 생활하는 몸도 나타내며 배우의 몸도 나타내며, 하늘을 섬기는 몸도 나타내며 공묘한 기술자의 몸도 나타내며 모든 시골과 도시와 서울과 마을에 있는 중생들의 처소에 가서 마땅한 대로 갖가지 형상·갖가지 위·갖가지 음성·갖가지 연륜·갖가지 사는 곳으로써 인드라그들과 같은 모든 세간에서 보살의 행을 행할 적에 세간의 훌륭한 사업을 말한다.”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의 분신에 대해 설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살행을 실천하여 부처님 생명을 꽃피워 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설해져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불법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불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극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강길진 교수의
불교와 의학 <12>

인식의 과정

부처님의 눈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결보습인 세속제(世俗諦)와 속모습인 진제(眞諦)라는 이중 구조로 보는데 왜 중생들의 눈에는 진제가 보이지 않고 세속제만 보이게 될까?

부처님은 사물을 보는데 있어 중생과 부처님과 인식(認識)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인식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처님은 사물을 보는 인식 과정에서,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은 단지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이고, 사물을 보는 주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과를 본다고 가정하자. 불교의 유

을 발견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이유를 탐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부처님의 마음은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결모습도 보이고 속모습도 보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때가 묻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의 속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동전의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볼 수 있는데, 마음에 때가 묻어 청정하지 못하면 동전의 앞면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코가 냄새를

인간의 모든 감각작용의 주체는 '마음'

외부자극 정보 파동 형태로 뇌에 전달

식학(唯識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서 안근(眼根), 즉 눈의 망막에 사과(像)가 비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분(相分)이라 한다. 이 상분은 다시 뇌의 시각중추에 가서 비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견분(見分)이다. 마음속의 기억 창고 속에는 과거에 저장된 사과의 상(像)이 있는데 이것을 자증분(自證分)이라 하였다. 이 자증분을 끄집어내 견분과 비교함으로써 견분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이때 확인작업을 하는 주체를 증자증분(證自證分)이라 했다. 여기서 증자증분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인식의 주체를 마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인식하는 과정과 중생이 인식하는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말는 것이 아니며, 혀가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접촉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감각작용의 주체는 마음이다.

그러면 오늘날 의학에서는 인식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미국의 뇌생리학자 겸 신경외과 의사인 칼 프리브람은 눈으로 보든, 귀로 들든, 혹은 냄새를 맡든, 5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자극이 인체에 들어오면 그것은 곧바로 전기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 뇌에 전달되는데 이때 뇌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진법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 기관은 서로 다르지만 뇌에 정보가 전달되는 순간에는 모두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했다. (계속)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⑦

화두의 언어적 특징

보조는 화엄을 비롯한 모든 교설을 사구(死句)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교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정신을 그 관념적인 체계 속으로 안주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들의 인식이란 도서관의 목록카드처럼, 새로운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체계와 개념에 의하지 않으면 인식하기가 어렵다. 나아가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정신에게는 오히려 지식은 앞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보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문에서 원돈선해의 참된 가르침이 오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사구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앞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 발심하여 공부하는 자들이 경절문의

활구를 아직 제대로 참구하지 못하기에, 성품에 맞는 원만한 이론으로 그들을 신해로부터 물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근기의 사람으로서 비밀히 전하는 가르침을 감당하여 교학적인 앞의 웅덩이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경절문의 의미 없는 말을 듣

인 언어관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하게 지시하는 대상과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의미에 기초하여 각각의 분제(分齊), 곧 차별에 의한 의미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화두라는 언어는 가리키는 대상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과 의미를 배제하여 언어라는 병 속의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언어이다. 의미를 발생시키기보다는, 그 언어의 길과 대상의 추구는 버릇을 분쇄함으로써, 반대로 의미체계라는 정교한 언어의 집을 무너뜨리는데 목표를 둔다.

이런 화두가 가지는 언어적 성격을 보조

자체를 해체시키고, 깨뜨리는 '뜻 없는 기호'인 것이다.

모든 언어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화두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명하게 정성문법에 속하지 않는다. 이점이 화두 간화선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지만, 동시에 간화선의 중요한 특징이다. 오히려 화두라는 언어는 정신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개념화된 은폐물로서 문법체계를 벗어난 일종의 치료적 도구라는 성격 가진다. 자신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여 의미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한, 작용이 없는 언어가 아니다. 비유하면 정신의 방안을 청소하는 일종의 빗자루이다. 빗자루는 세계의 방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개념과 사회적 인 체계에 의해서 그려진 세계의 방을 벗어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간화선에서 강조하는 경절(徑截)이란 '곧바로 가로 질러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개념적인 체계로부터 정신의 자유로움을 가리키는 말이 다른 아니다.

■인경(禪學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y.org)

개념적 체계 벗어나면 정신의 자유

자마자 지해의 병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마음 자리를 알게 한다. 이를 일러서 하나를 듣고서 천 가지를 깨닫는 대총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

간화란 '이야기를 지켜본다'는 의미라면, 역시 간화선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화두도 언어라면 전통적

의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에서는 '집착을 깨뜨리는(破執)' 연구라고 규정하고,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는 '의미 없는 말(無味之談)'이라고 했고, 비유하여 '알과 이해를 깨뜨리는 기장(器杖)', 혹은 '얼굴을 태워버리는 불꽃'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화두는 인식과 대상의 관계를 구성하는 문법과 의미를 생산해 내는 인식구조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완간 출시

드디어 「수정보완본」 전12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본서(本書)를 애호하시고 선입금하신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하십니까?

■ 절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미처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 출생 연월일시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세력도 볼 필요가 없으며 그날 그시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서(奇書)가 있습니다

- 이 책에서 밝혀진 귀신(작사鬼와 병鬼)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은 정확하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적시해 놓은 귀신해소법은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
- 매일 하루치를 꺼내보고 넣고하므로 세세영영 간편히 보게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서입니다.
-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 감히 말하건대 이책 이상의 편리하고 정확한 활인전역서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은 귀하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성있게 해 줄것이니 틀림없습니다.

■ 책값이 비싸지만 비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사육임강의록」을 증보합니다. 전에 구입하신 분은 교환 신청하십시오.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 효사 -

주문 전화 (02)993-8680

부산지사 (051)851-2349

일금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신용카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問